

작은도서관운동을 돌아보며

— 전국의 사서에게 드리는 글 —

작은도서관운동을 시작한지 2년이 넘어섰다. 뒤돌아 볼 때 700여개소에 달하는 작은도서관 개설자 및 희망자들이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불구하고 묵묵히 헌신적인 봉사자세로 주민에 봉사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이러한 제 현상들은 우리 국민들의 지적욕구가 얼마나 강인가 하는 것도 새삼 느끼게되고 국가가 얼마나 도서관계의 발전과 국민의 지적욕구에 소홀하였던가 하는 것도 알 것만 같다. 민간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도서관운동,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봉사자세, 작은도서관을 위해 지원하는 후원자들에 대하여 전국의 모든 사서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또한 지도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이제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세우고 행정부서에 지원요청을 해야한다.

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은 사회의 중심적 회합의 장소가 되어야 하며 사회교육의 장으로 예술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문화그룹과 협력관계를 유지발전시켜야 한다. 작은도서관에도 모든 자료와 정보가 축적되어져야만 하고 공동의 미술작품전, 음악행사, 시·무용·연극행사 등을 합동으로 개최해야 한다. 문화행사의 발안자가 되어야하고 지역의 사회단체, 문화단체와 유대관계를 맺어야 한다.

작은도서관의 역할도 국민 전체의 사회교육 및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소도서관이므로, 초·중·고·대학 전체를 합친 학교 숫자보다 수십 수백배 더 많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회 모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 분야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모든 열정을 다해 미친듯이 외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도서관 분야에는 이러한 열정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적고 구호만 부르짖고 있는 것인지 안타까울 뿐이다. 이러한 근원적인 문제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도서관 발전을 위한 어떠한 욕망도 의지도 없는 것일까! 하루하루 정해진 시간에 적당히 일하는데 만족하는 것일까! 우리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도서관인이 되었으면 한다. 먼 훗날 뒤돌아 보았을때 보람되고 알찬 봉사활동을 했다는 만족감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오늘날 타분야의 발전속도와 도서관의 발전 속도를 비교 종합 분석하여 상위권은 되지 못하더

라도 이제는 중위권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전문직 사서도 재무장하여 정보화사회의 경쟁에 이겨야 하지 않겠는가!

소수의 사람들이 외치는 도서관 일원화, 행정의 일원화 등 도서관계의 산재한 문제가 몇마디의 글로서 외치고 자극하려해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 될 것인가!

작은도서관운동을 통해 본 사서들의 반응은 너무 미미하다고 본다. 몇몇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행동의 실천으로 문제를 풀어 보려는 사람은 드물었다.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들과 무보수로 작은도서관을 개설하여 봉사하는 사람들을 비교해 본다.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이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보다 헌신적인 봉사정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도서관의 새로운 혁신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1994년 3월 24일 제정공포)에 뒷받침되어 있는 작은도서관(문고)운동이 아닐까? 새로 제정된 법의 실천을 위해 각 시·군·구의 도서관 조례 제정 및 개정에 최대의 관심을 갖고 조직적인 도서관행정 체계와 정책, 행동하는 도서관인이 되어야 겠다. 지금 탄생되고 있는 문고와 도서관이 상호 협력한다면 현재의 여러 현안문제를 타결하는데 몇배의 힘이 작용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도서관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작은도서관운동에 몸과 마음이 한마음 되어지길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법을 쫓피워 나가는 사서가 되자”고 감히 주장하는 바이다.

(정정식 / 종로도서관 열람과장)